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원인과 결과변인 탐색

이 상 주* · 이 약 희**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 경향에 관한 원인과 결과변인을 타당화 하는데 있다. 총 885명의 고등학생이 본 연구를 위한 설문에 응답하였다.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자기통제력, 사회적 불편감, 문제행동, 부모와의 관계, 학업성적, 충동성,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접근용이성에 해당하는 8개의 다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인터넷 중독과 가장 관련이 깊은 변인은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과 문제행동으로 나타났다. 충동성, 사회적인 불편감,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는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과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 경향과 그것의 선행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인터넷 중독 경향은 3가지 개인차 요인들(자기 조절, 충동성, 사회적 불편감)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인터넷 사용은 인터넷 중독과 친밀하게 관련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인터넷 중독적 사용 경향, 청소년기

* 위덕대 사회복지학부 겸임교수

** 대구고등학교 교사

I. 서 론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세계적인 추세도 그러하다. 이와 더불어 지나친 인터넷 사용에 따른 부작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아이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주부, 자신의 직무 수행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회사원이나 청소년들이 속출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게임에 몰두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30대 PC방 업주의 사례와 함께 이보다는 덜 극단적이지만 인터넷의 과다 사용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 직장인의 사례도 허다하다. 특히 청소년의 음란물 접속 및 인터넷 게임을 즐기느라 밤을 새워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부정적 사용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타임지는 인터넷이 사용자에게 하나의 가상공간(cyber space)을 제공해주며 이러한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에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인터넷을 정보화시대에 가장 저렴한 산뜻한 마약(smart drug)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이소영, 2000).

특히 청소년에게는 정보화 세대에 걸맞게 통신을 이용하여 다른 또래의 집단들과 가상세계 속에서 만나거나 정보를 획득하고, 놀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김세영, 1999). 또 전국 곳곳에 산재한 PC방과 광통신망의 발달로 청소년들은 예전보다 더 용이하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미치는 또래 집단과 매체의 영향력은 부모와 가족의 영향력에 비해 크므로(신평우, 1999), 인터넷 사용이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Goldberg(1996)가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말을 처음 언급함으로써 시작된 인터넷 중독은 이제는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안석, 2000). 지나친 인터넷 의존에 관한 Young(1999)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의 과다 사용은 학생들의 성적을 떨어뜨리고, 부부관계 등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를 발생시키며, 직장인에게는 상사와의 갈등을 겪게 하는 등 일상생활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에 접속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우울하고 불안해 지며, 지나친 인터넷 사용은 일종의 중독 장애로 진단될 만큼 학업적, 직업적 그리고 심리적 영역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다

(Young, 1999).

지금까지 인터넷 중독연구들은 인터넷 접근 용이성과 시간 조정의 융통성을 이유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PC방을 출입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신중독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김세영(1999)의 연구와 게임중독이 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소영(2000)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문제해결능력 및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을 예측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자기통제, 사회적 불편감, 충동성 등이 있다. 특히 중독 행동과 충동성 및 자기 통제력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행하여졌다. Blaszczynski, Steel과 McConaghy(1997)는 다중-충동 성격장애로 고통받는다고 호소하는 병리적 도박사 집단의 중요한 특징으로 충동성을 들었다. 이 연구에서는 Eysenck의 충동성 척도를 사용해서 115명의 병리적 도박사들의 충동성의 잠재적 역할을 조사하였다. Blaszczynski 등(1997)의 연구 결과, 충동성의 증가가 병리적 도박사들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의 심각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동성은 Eysenck의 성격 질문지의 정신증 척도, California 성격검사의 사회화 척도, DSM-IV의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있는 구성요소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소영(2000)은 인터넷에 대한 몰입수준이 높을수록 더 충동적이며, 충동성이 인터넷 중독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지선(1999)의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해결하는 등의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사이버 공간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가상공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속에서 유대감을 얻으며, 강한 친밀감을 얻기 위해 더욱 인터넷에 의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은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어 이미 우울증, 양극성장애, 불안, 낮은 자존감, 중독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지선, 1999; 김진숙, 2000; 윤재희, 1999). 김옥순과 홍혜영(1998)은 불안, 초조, 외로움 등의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들은 지지적 경험들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

한 지지를 사이버공간에서 얻으므로 더욱 의존하고 빠져들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병국(1999)은 컴퓨터 통신에 몰입하는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약화되어 대인관계에서 획득해야 할 사회적 기능을 학습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사회 부적응 상태로 빠지게 될 소지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Kraut, Lundmark, Patterson, Kiesler, Mukopadhyay와 Scherlis(1998)는 가상공간의 지속적인 활용이 사회 망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접촉을 감소시키며, 자신을 고립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계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사회 환경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요인은 개인 심리적 특성처럼 활발히 연구되지는 않았다. 이계원(2001)에 의하면 현실에서의 여가공간 및 프로그램 부족,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 면에서 우수한 가상공간,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과 컴퓨터 사용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부모의 통제부족 등이 청소년의 개인 심리적 특성과 맞물리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하였고, 인터넷은 청소년들의 가치관, 의식구조 및 생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인터넷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더 심한 경우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적응 및 가정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성격특성이나 심리적 영역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에 국한되어 있으며, 개인의 사회 환경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은 미미한 형편이다. 특히 개인의 심리특성과 사회 환경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볼 때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과 함께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의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을 밝혀서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과 함께 개인을 둘러싼 가족, 사회 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개입을 가

능하게 하고, 컴퓨터 사용에 대한 건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

중독이란 의학적으로 단순히 탐식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대상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고,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김옥순, 홍혜영, 1998). 현재 인터넷 과다사용에 관해 3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중독으로 규정하는 Young(1999)의 입장이다. Young(1999)은 온라인 인터넷 중독 센터(Center for Online Addiction)를 만들고,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중독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 Griffiths(1999)도 인터넷 중독을 여타의 행동적 중독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논문과 저서를 통하여 약물 의존 외에 다양한 행동에서 중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예로 도박, 과식, 성행위, 운동, TV 및 컴퓨터 게임을 들었다. 이와 같이 그는 중독을 약물 중독과 행동적 중독으로 나누고 인터넷 중독은 행동적 중독에 포함시켰다.

두 번째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하나의 독립된 중독 장애로 보기보다는 과도한 컴퓨터 사용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를 처음으로 주장한 Goldberg(1996) 역시 후에는 자신이 제시한 인터넷 중독 준거 대신에 병리적 컴퓨터 사용(pathological computer use)으로 수정한 바 있다. 비록 그가 자신의 준거 수정을 통하여 인터넷 중독 자체를 컴퓨터 중독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주장한 바는 없으나, 인터넷 중독을 병리적 컴퓨터 사용의 개념으로 확장시킨 데에는 인터넷 중독자가 단순히 인터넷 사용 하나에만 몰입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컴퓨터 사용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입장은 인터넷 중독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고,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아직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중독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Suler(1996)는 인터넷 중독이 타당한 진단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 인터넷 중독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들은 매스컴에 의해서 과장된 인터넷 중독, 한 때 일시적으로 중독에 빠지는 것, 그리고 실제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였다. 사실 많은 매스

컴에서 인터넷 중독을 다루고 있어서 실제 중독자의 수는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념은 병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단지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뿐이다. 이렇듯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는 문제로 규정되어 사용되기보다는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이 가져오는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을 중독증이라는 병리적인 용어로 규정하기보다는 중독적 사용 또는 과다 사용이라는 사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은 아직 공식적인 병명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한 사용을 문제 자체로 보면서 병의 하나로 인식하는 중독증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의 결과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결과는 여러 학자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Goldberg(1996)는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여가활동이 줄어들고 수면박탈, 친구의 감소와 학교를 소홀히 하여 위험 수준에 이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1998)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 대인관계 지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결과 중독적 인터넷 사용자는 통제력이 약했고, 인터넷을 통해 행복감을 추구하며, 인터넷 사용시간이 점점 더 늘어났으며, 일상생활에 부적응을 보였고, 감정조절 능력이 감소하고, 대인관계의 장애를 보였다.

김중범(2000)은 인터넷상에서 네티즌을 대상으로 자존감, 우울, 외로움, 공격성을 중심으로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집단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 척도에 의해 상위 25% 집단과 하위 25%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중독적 사용 집단이 비중독적 집단에 비해 외로움과 우울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존감과 공격성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교육단체 자문협회에서는 인터넷에 관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문제로 학업실패, 정학이나 퇴학, 수업참여에 대한 흥미 상실, 학업 동기 부족, 학업시간 감소, 수업 외 활동에 대한 흥미 감소, 이성관계에서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와 관계 파괴,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흥미 감소,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 증가, 실생활의 친구보다 온라인상의 친구와 더 가까워지는 것 등을 들었다. 중독적 사용자들은 이러한 부정적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

Young(1997), Goldberg(1996), Suler(1996) 등도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신체, 심리, 대인관계, 일상생활 등에서의 문제들을 기준으로 문제와 증상에 관한 기준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해 보면, 개인적인 면에서는 신체적인 문제와 수면문제, 그리고 학업에서의 실패가 있으며, 가족 내에서는 가족간의 갈등 등이 있을 수 있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사회활동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여 전반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줄어들게 되며, 친구들과의 갈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의 원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의 원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개인적 요인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기통제력, 사회적 불편감, 충동성, 이전의 인터넷 이용 경험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관련될 수 있다. 자기 통제력이란 개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 통제력은 자신과 타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하며, 공공의 재산을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능을 한다. 알콜이나 마약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은 사회 환경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인 자기 통제력의 부족 탓도 큰 것으로 보인다(송원영, 1999).

둘째, 인터넷 중독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불편감을 들 수 있다. 황수정(2000)은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10대의 남자들이 많으며,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불편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친구를 사귀어 정서적인 지지나 위로 등의 보상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인터넷에 매달리게 된다고 보고했다(황수정, 2000). 이렇듯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게임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 실생활에서 사회적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것이며, 중독에의 유인자극이 된다.

셋째, 충동성 역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충동성은 생각없는 행동, 성급한 의사결정, 미래보다는 현재를 생각함, 검증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등과 같은 특성이라고 정의되기도 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내리는 사람에 대한 일관된 성향으로 기술되기도 한다(김동욱, 2001). 충동성에는 더 크고 장기적인 측면을 포기하고 단기적인 획득을 결정하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충동성은 중독이라는 개념과 연관된다. 즉 약물, 도박,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쾌락적인 자극이나 흥분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러한 행동의 장기적인 영향은 직장에서의 해고, 법적인 문제, 재정적 어려움 등을 야기 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전의 인터넷 이용 경험정도가 인터넷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1998)는 인터넷 중독사용자는 인터넷 사용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따라서 인터넷 이용시간과 인터넷 중독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송원영(199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연구에서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체 사용시간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고 하였다. 서울소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석(2000)의 연구에서도 인터넷의 사용시간이 더 많을수록 중독적인 사용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환경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에서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적 요인과 인터넷 접근 용이성을 들 수 있다. 먼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

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관련된 변인이 되고, 가족에서 느끼는 지지는 청소년의 인성과 성격 발달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행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가족의 구조와 형태 그리고 가족 내적인 역사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Young(1997)은 우리가 고립감을 느낀다면,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의 억압된 감정을 쏟아낼 수 있고 우리의 감추어져 있는 면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족과 사회에서 냉담하게 되면 우리를 지지해주는 인터넷 중독자의 모임 속으로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인터넷 접근 용이성은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이 있다.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1998)의 연구결과 집에서 인터넷을 하는 경우 PC방에 자주 가는 학생, 인터넷을 함께 하는 친구가 많은 청소년, 부모가 인터넷에 대해서 허용적인 경우 등과 같은 인터넷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인터넷 중독이 많고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이의 선행변인간의 관계, 인터넷 중독적 사용과 이에 따른 부정응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방법

1. 조사절차

설문조사는 대구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성별, 학교 형태별로 각각 250부씩 총 1000부를 배포하여 915부를 회수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

답한 30부를 제외한 885부를 대상으로 자료처리를 하였다. 자료에 대한 모든 분석은 SAS 8.1판을 이용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조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중독검사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Young(1996)의 온라인 중독 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만든 5점 척도로 된 인터넷 중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를 윤재희(1998)가 변안하여 ‘예/아니오’의 양분 문항으로 변형하고, 이를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도록 이선희(1996)가 수정·보완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인터넷이나 통신 사용과 관련된 강박적 행동, 대인관계성향의 변화, 학업에서의 장애여부, 통제 질제력의 여부, 행동상의 문제 및 정서적 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개인적 요인에 관한 척도

(1) 자기통제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남현미(1999)가 사용한 자기 통제력 척도와 자기 통제평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10개의 문항(1, 2, 4, 8, 10, 11, 12, 13, 15, 20번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2) 사회적 불편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편감 관련 질문지로 한국형 MMPI의 내용척도에서 대인관계를 측정하는 사회적 불편감의 25문항을 사용한 이혜진(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거나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혼자 있기를 선호한다. 또 이들은 내성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지각하게 하는 여러 가지 모임이나 사회활동을 싫어한다.

(3) 충동성

충동성 척도는 Barratt Impulsiveness Scale을 이현수(1992)가 번안한 BIS II 판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인지 충동성 6문항, 운동 충동성 8문항, 무계획 충동성 9문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사회 환경적 요인에 관한 척도

본 연구에 포함된 사회 환경적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이다.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장일순(2001)이 사용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와의 관계와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모님과 자녀의 관심, 부모와 자녀의 갈등관계 정도,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 부모의 인터넷에 대한 통제력의 4개 하위영역을 가지고 있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방식의 5점 척도이다.

4) 청소년 문제행동 척도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척도는 안석(2001)이 K-CBCL의 척도와 박용권의 문제행동 척도, 그리고 정세용의 문제행동 척도를 참고하여 미국 심리학회와 교육 단체 자문 협회가 제시한 영역에 맞는 문항으로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신체문제, 학교문제, 가족문제, 사회적 문제 영역들이다. 신체문제 영역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집중력과 피로, 신체적인 이상을 측정하는 문항들이고, 가족문제 영역에는 가정과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문제 영역은 학교수업, 성과 관련된 문항, 사회문제 영역에는 친구나 또래 등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표 1은 조사대상자의 성별 및 학년별 빈도와 퍼센트이다. 전체 885명 중 남학생은 453명(전체의 51.19%), 여학생은 432명(전체의 48.81%)이었다. 이들 중 1학년은 194명(21.92%), 2학년은 499명(56.38%), 3학년은 192명(21.69%)인데 절반 이상이 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성별 및 학년별 조사대상자 수

성별	학년			전체
	1학년 N (%)	2학년 N (%)	3학년 N (%)	
남자	69(7.80)	373(42.15)	11(1.24)	453(51.19)
여자	125(14.12)	126(14.24)	181(20.45)	432(48.81)
전체	194(21.92)	499(56.38)	192(21.69)	885(100.00)

표 2.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하루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빈도	%
30분 이내	154	17.17
30분 이상	97	10.81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278	30.99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170	18.95
3시간 이상 - 4시간 이내	83	9.25
4시간 이상 - 5시간 이내	51	5.69
5시간 이상	64	7.13

표 2는 조사대상자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한 빈도와 퍼센트이

다. 조사대상자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69%는 하루 평균 인터넷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30.9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의 과다사용에 대한 기준은 명확치 않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약 23%가량이고 5시간 이상이 7.13%로 나타나 5시간 이상 사용자를 중독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통계적 이상(異常)이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은 인터넷 중독 척도 점수를 기준으로 상하위 약 1/3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이다. 5점 척도 상에서 중독적 사용집단은 평균 3.05이상, 비중독적 사용집단은 2.45이하이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중독적 사용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별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자의 비율

	남	여	전체
중독적	N (%)	N (%)	N (%)
비중독적	120 (37.38)	177 (62.11)	297 (49.01)
전체	321 (100.00)	285 (100.00)	606 (100.00)

III. 결 과

1. 척도의 신뢰도

표 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 및 하위요인들의 내적 신뢰도를 나타낸 것이다. 척도는 인터넷 중독에 초점을 두고 인터넷 중독을 일으키는 선행요인을 알아보는 것과 인터넷 중독 상태, 그리고 인터넷 중독의 결과를 설명해줄 수 있는 척도들로 구성되었다.

표 4. 척도의 신뢰도

척도	문항수	α
인터넷 중독의 선행요인		
자기통제력	11	.73
사회적 불편감	17	.87
부모와의 관계	12	.86
총동성(운동+무계획)	13	.77
- 인지총동성	6	.21
- 운동총동성	6	.72
- 무계획총동성	5	.68
인터넷 중독	20	.92
인터넷 중독의 결과		
문제행동	13	.79
- 신체적 문제	3	.64
- 가족과의 문제	3	.59
- 학교생활 문제	3	.68
- 교우관계 문제	4	.66

인터넷 중독의 선행요인에 해당하는 척도는 자기통제력, 사회적 불편감, 부모와의 관계 및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동성 척도들이다. 총동성의 하위요인 중 인지총동성은 신뢰도가 낮아($\alpha = .21$) 이후 분석에서 이 요인은 제외되었다. 표 4에서 인터넷 중독의 선행요인 척도들의 Cronbach의 내적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60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현재 상태를 측정하는 인터넷 중독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92의 내적 신뢰도 값을 가져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중독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문제행동척도는 하위 4개의 요인인 신체적인 문제, 가족과의 문제, 그리고 학교생활 문제 및 교우관계 문제로 구성되었는데 전체적인 문제행동척도의 신뢰도는 .81로 양호하고, 하위요인별 신뢰도 또한 비교적 양호했다. 단, 가족과의 문제 요인은 문항수의 제한으로 인해 .59의 신뢰도를 얻었다.

2.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자의 문제 및 특성

표 5는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9개의 다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은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 문제행동, 충동성, 사회적 불편감과는 정적상관을, 자기 통제력, 부모와의 관계와 학업성적과는 부적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거의 일관된다.

표 5.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중독적 사용	
	<i>r</i>	<i>p</i>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	.37	.0001
문제행동	.37	.0001
충동성	.26	.0001
자기통제력	-.24	.0001
사회적 불편감	.18	.0001
부모와의 관계	-.09	.0059
학업성적	-.08	.0198
인터넷 접근용이성	-.05	.1240

표 6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5개의 선행 변인들(자기 통제력, 사회적 불편감, 충동성, 부모와의 관계, 인터넷 접근 용이성)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단계적 회귀분석을 거친 3개의 변인들(자기 통제력, 사회적 불편감, 충동성)을 독립변인으로,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을 종속변인으로 한 다중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다중회귀 분석결과, 자기 통제력이 부족할수록, 충동성이 강할수록, 그리고 사회적 불편감이 높을수록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선행 변인과의 다중회귀 분석결과

변량원	표준회귀			단계적 회귀		
	<i>b</i>	β	Sr^2	누적 Sr^2	<i>F</i>	<i>p</i>
절편	2.36296					
자기통제력	-0.22581	-0.14856	0.0587	0.0587	56.07	.0001
사회적 불편감	0.19285	0.13830	0.0177	0.0764	17.21	.0001
충동성	0.19383	0.11360	0.0088	0.0853	8.67	.0033

표 7.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간의 관계

	중독적 사용	문제 행동	인터넷 사용시간	학업 성적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	1.00			
문제행동	0.37***	1.00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	0.37***	0.11**	1.00	
학업성적	0.08*	0.22***	0.05	1.00

* $P < .05$ ** $P < .01$ *** $P < .001$

표 7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문제행동,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 학업성적과 같은 문제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이다. 실상 이들 4개 변인들은 어느 것이 선행 변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 변인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다중회귀분석보다는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문제행동($r=.37$),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r=.37$)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인터넷 사용시간 간의 높은 상관은 당연한 결과이다. 문제행동 척도에는 가족, 학교, 타인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문제행동의 하위 영역간의 세부 관계를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은 과다사용을 수반하게 되고,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인터넷 사용이 자신이 수행해야 할 주 과제가 아니라면 생산성 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된 과제를 소홀히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문제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8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 대 비중독적 사용 집단간 각 변인별 평균차 여부를 검증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척도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1/3 집단을 중독적 사용 집단으로, 하위 1/3 집단을 비중독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집단간 평균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집단이 비중독적 사용집단에 비해 사회적 불편감을 유의하게 더 느끼고,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키며, 충동적이고, 일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중독적 집단이 중독적 집단보다 자기 통제력이 더 높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접근 용이성은 비중독적 집단의 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 대 비중독적 사용 집단간의 차이

변인	중독적(n=314) 집단		비중독적(n=300) 집단		전체(n=614)	
	M (SD)	M (SD)	M (SD)	M (SD)	t	p
자기통제력	3.05 (0.49)	3.26 (0.48)	3.15 (0.50)	3.15 (0.50)	-5.45	.0001
사회적 불편감	2.83 (0.51)	2.64 (0.57)	2.74 (0.55)	2.74 (0.55)	4.23	.0001
문제 행동	2.73 (0.59)	2.26 (0.52)	2.50 (0.61)	2.50 (0.61)	10.40	.0001
신체문제	3.37 (0.81)	2.93 (0.81)	3.16 (0.84)	3.16 (0.84)	6.79	.0001
학교문제	2.56 (0.90)	2.06 (0.86)	2.32 (0.91)	2.32 (0.91)	6.98	.0001
가족문제	2.50 (0.78)	1.99 (0.65)	2.25 (0.76)	2.25 (0.76)	8.85	.0001
사회적 문제	2.49 (0.78)	2.06 (0.59)	2.28 (0.73)	2.28 (0.73)	7.58	.0001
부모와의 관계	2.98 (0.63)	3.09 (0.77)	3.03 (0.70)	3.03 (0.70)	-2.06	.0395
학업성적	3.85 (1.89)	3.56 (1.87)	3.71 (1.89)	3.71 (1.89)	1.92	.0559
충동성	2.91 (0.49)	2.65 (0.55)	2.78 (0.53)	2.78 (0.53)	6.38	.0001
운동충동성	2.98 (0.58)	2.60 (0.61)	2.80 (0.62)	2.80 (0.62)	8.04	.0001
무계획 충동성	2.80 (0.65)	2.72 (0.68)	2.76 (0.67)	2.76 (0.67)	1.40	.1619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	4.12 (1.80)	2.68 (1.40)	3.41 (1.76)	3.41 (1.76)	11.00	.0001
접근용이성	3.38 (1.01)	3.55 (0.97)	3.46 (1.00)	3.46 (1.00)	-2.05	.0407

표 9는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른 인터넷 이용 용도에 대한 빈도와 퍼센트 자료이다. 표 9에서 중독적 사용 집단과 비중독적 사용 집단간 주된 차이는 게임 이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적 사용 집단은 비중독적 사용 집단에 비해 게임을 주로 한다는 응답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42.04% 대 21.00%). 반면 비중독적 집단은 ‘음악듣기/다운로드’, ‘정보검색’, ‘E-mail 주고받기’ 등에서 중독적 사용 집단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채팅의 비율은 두 집단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9.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 정도에 따른 인터넷 이용 용도

이용 용도	중독적	비중독적	전체
	N (%)	N (%)	N (%)
게임	132 (42.04)	63 (21.00)	195 (31.76)
채팅	58 (18.47)	59 (19.67)	117 (19.06)
음악듣기/다운로드	38 (12.10)	50 (16.67)	88 (14.33)
정보검색	29 (9.24)	44 (14.67)	73 (11.89)
동호회	22 (7.01)	28 (9.33)	50 (8.14)
E-mail	6 (1.91)	21 (7.00)	27 (4.40)
뉴스보기(신문, 잡지)	4 (1.27)	13 (4.33)	17 (2.77)
성인사이트 이용	9 (2.87)	6 (2.00)	15 (2.44)
방송보기	3 (0.96)	8 (2.67)	11 (1.79)
학습	3 (0.96)	4 (1.33)	7 (1.14)
기타 다운로드	4 (1.27)	0 (0.00)	4 (0.65)
온라인 거래	1 (0.32)	0 (0.00)	1 (0.16)
기타	5 (1.59)	4 (1.33)	9 (1.47)
전체	314 (100.0)	300 (100.0)	614 (100.0)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해 요약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의 과다사용과 이의 선행변인 및 결과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과다사용과 자기통제력, 사회적 불편감, 문제행동, 부모와의 관계, 학업성적, 충동성,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접근용이성에 해당하는 8개의 다른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인터넷 중독과 가장 관련이 깊은 변인은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과 문제행동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과다 또는 중독적 사용자가 사용시간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자신의 주 과제가 아니며 생산성도 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 과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문제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충동성, 사회적인 불편감,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는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과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중회귀 분석결과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자기 통제력, 사회적 불편감, 충동성 등이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자신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현실에서 장래의 더 큰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가상세계에서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기에 인터넷 중독으로 빠지기 쉽다고 볼 수 있다(이계원, 2001). 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충동성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었다. 즉 충동성이 강한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탐색이나 새롭고 독특한 것을 즉각적으로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인들은 충동

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이다(김동욱, 2001). 자기 통제력, 충동성과 함께 사회적 불편감이 인터넷의 충동적 사용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실생활에서 사회적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며 인터넷은 자신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이의 결과 변인(학업성적, 문제행동, 인터넷 사용시간)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실상 이들 4개의 변인들에 대한 인과 설정이 애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과모형을 택하지 않고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은 문제행동, 인터넷 사용시간 및 학업성적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로 인과적인 설명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나 시간적 순서로 본다면 문제행동에서 인터넷 중독으로 가기보다는 인터넷 중독적 사용으로 인해 여러 문제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인터넷 사용시간, 학업성적과의 관계는 앞에서 논의된 바 있다.

넷째,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집단(상위 1/3)과 비중독적 사용집단(하위 1/3)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결과는 앞에서 논의된 여러 결과와 다소 중복된다. 두 집단 평균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 중독적 사용 집단이 사회적 불편감, 문제행동, 충동성, 인터넷 사용시간에서 비중독적 사용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독적 집단은 자기 통제력, 부모와의 관계 및 인터넷 접근 용이성에서 중독적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덧붙여 인터넷 중독 집단의 인터넷의 주된 이용용도는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해석상의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검증 시도의 부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이의 원인 및 결과 변인간의 관계구조모형은 검증되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의 원인 변인과 결과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호성에 있다.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의 선행 변인간 보다 명확한 이론적 검토 후에 모형 검증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중독 척도의 내용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인터넷 중독 척도에는 강박적인 행동, 대인관계 성향의 변화, 학업에서의 장애 여부, 통제 절

제력의 여부, 행동상의 문제 및 정서적 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하위 구성개념은 인터넷 중독의 선후행 변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실제 관계보다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인터넷 중독의 개념 및 조작적 정의의 문제이다. 인터넷 중독이 다른 병리적 중독(마약, 알콜 등)의 개념과 같은 자격으로 사용되려면 보다 명확한 개념 정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조작적(또는 측정적)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청소년 개인의 사회적 불편감을 한층 강화하고,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켜 더 큰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각자가 적응력을 갖추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신 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가족, 사회 환경 전반에서 관심을 갖고 개입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지선(1999). PC통신 이용자의 고독, 사회불안 및 대처방식과 통신중독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욱(2001). 인터넷 이용충족, 플로우 및 개인적 성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세영(1999). 통신중독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순, 홍혜영 (1998). 정보사회와 청소년 I-통신중독증. 서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김종범(2000). 인터넷중독 하위집단의 특성 연구: 자존감, 우울, 외로움,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2000). 청소년의 PC중독 사례와 상담적 접근. 청소년의 PC중독.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원영(1999).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평우(1999). 청소년 초기의 전자게임 이용과 교우관계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석(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희(1999).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원(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병국(1999). PC통신 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 고

- 등학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희(1996). 청소년들의 PC통신 활용실태 및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2000). 게임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수(1992). 충동성검사 실시요강. 서울: 한국가이던스.
- 이혜진(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개인, 가족, 학교 및 또래 환경요인과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일순(2000). 한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총론 제 18집.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1998). 정보사회와 청소년: 통신중독증.
- 황수정(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지지 지각 및 사회적응력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www.rider.edu/users/suler/psyber/supportgp.html>
- Griffiths, M. D.(1999). Internet addiction: Fact or fiction? *Psychologist*, 12, 246-250.
- Kraut, R., Lundmark, V., Patterson, M., Kiesler, S., Mukopadh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1017-1031.
- Suler, J. (1996). The psychology of cyberspace. World wide web.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August.
- Young, K. S. (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 79, 899-902.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 evaluation, and treatment. In L. VandeCreek, & T. Jackson(Eds.). *Innovation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17.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ABSTRACT

A Exploratory Research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Internet Addiction Tendency

Lee, Sang-Joo* · Lee, Yak-Hi**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erify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internet addiction tendency. In total, 885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By sex, male students were 453, female students were 432.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nd its related factors, adolescents' the time of internet using, problem behaviors, impulsivity, and social discomfort factor showed positiv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tendency. While, adolescents' self-control,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degrees of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showed negativ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internet addiction tendency.

Seco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nd its antecedent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internet addiction tendency was directly affected by three individual difference factors(self-control, impulsivity, and social discomfort).

* Affiliate Prof.,Dept. of Social Welfare,Ui-Duk University

** Daegu high-school

At las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also proposed.

Key Words: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dolescent

투고일 : 10월 30일, 심사일 : 12월 8일, 심사완료일 : 12월 23일